

강연 녹취록

「한미복합동맹을 향하여」 (Toward Korea-US Complex Alliance)

- 일시 : 2008년 11월
- 강연 : 하영선(河英善) 서울대 교수
켄트 칼더(Kent Calder)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 사회 : 전재성 서울대 교수

□ 인사말

○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최하고 평택시가 후원하는 한미복합동맹을 향하여'라는 공개 대강연회는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저는 진행 사회를 맡은 서울대 외교학과의 전재성입니다. 우선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흥구 이사장님을 모셔서 환영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 이흥구 :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지만 나라의 중요한 일에는 다 같이 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반세기가 넘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융위기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라든가 하는 이런 큰 변화를 보면서 과연 우리 한미동맹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생각이 많으시고 또 우려도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몇 해 동안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연설하러 나오신 하영선 교수가 주관을 해서 그 연구를 몇 해 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영선 교수가 주요한 새로

운 개념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복합동맹”(complex alliance)이 되겠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하영선 교수께서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평택시가 후원하고 있다.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주한미군 하면 용산을 생각해왔는데 이제 머지않아 평택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와 있다. 과연 이 새 시대에 걸맞은 국민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이것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미군 기지를 하나의 지역공동체 부분으로서 받아들이는 평택시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모임도 이러한 준비에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동아시아연구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콜더 교수, 하영선 교수, 또 사회를 맡으신 전재성 교수께 감사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강연회를 시작하겠다. 미리 공지가 나갔는데 원래 이상희 장관과 커트 캠벨씨를 모시기로 했는데, 두 분 모두 양 정부에 급한 일정이 생겨서 오늘은 양국을 대표하는 두 분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하영선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고, 미국 측에서는 켄트 칼더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략 한 20~25분 정도씩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여러 전문가들과 학생이 많이 오셨는데, 강연을 들으시면서 질문지에 질문을 써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시간이 닿는 대로 질문을 모아서 두 분 강연자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질문지를 작성하실 때는 어느 분께 질문을 드린다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강연을 들으면서 질문지를 작성해주시기 바란다. 순서는 하영선 교수님의 강연을 먼저 듣고 켄트칼더 교수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다.

먼저 하영선 교수님의 주요 약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영선 교수님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

다. 프린스턴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을 역임하셨고,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한국평화협회회장, 그리고 지금은 동아시아연구원 지구넷21 회장을 맡고 있다.

□ 하영선 교수 강연

사회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캠벨 박사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바마 정권 인수과정에서 역할을 하게 된 관계로 한국에 와서 강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 같다. 제 지금 심정은 시험장에서 미처 준비 못한 시험 문제를 즉석에서 풀어야하는 수험생 같은 기분이다. 다르게 비유하자면 연주자로서 사전 연습 없이 신곡을 즉석 연주해야하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반대로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25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도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지는 다 끝나봐야 알 것이기 때문에 서로 즐거운 25분이 될 것 같다.

한미동맹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두 달 동안 겪고 있는 사건들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세계와 한국이 함께 겪고 있는 “세계금융위기” 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이다. 이 두 사건이 나머지 사건들을 당분간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새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지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이흥구 이사장님이 소개했듯이 EAI에서 한미동맹을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5년 전이다. 그 1차 작업의 결과를 2년 전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라는 소책자로 발행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에 관한 논의가 단순한 냉전이나 탈냉전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21세기 초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었다. 동시에 국내의 보수와 진보라는 구시대적 구분을 넘어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 좀 길게 봐서 21세기 향후 100년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을 자리 잡게 할 것이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는 단순한 근대(modern)도 아니고 단순한 탈근대(postmodern)의 시대도 아니다. 21세기는 모던과 포스트모던을 동시에 겪어야하는 딜레마의 시대이다. 따라서 시대를 규정하는 표현 역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시대 규정 하에서 한미동맹 역시 복합동맹’(complex alliance)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근대적 동맹은 무엇이고, 탈근대적 동맹은 무엇이며 '복합동맹'은 무엇인가? 근대동맹은 국가라는 주인공(actor)이 일차적으로는 군사,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경제 무대에서 생존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긴밀하게 공동 노력하는 것이라면, 탈근대(postmodern) 동맹은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transnational), 하위국가(subnational)의 주인공들이 환경, 문화, 지식과 같은 새로운 무대(stage)에서 삶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복합동맹'은 이 두 동맹형태의 복합을 의미한다.

'복합'(complex)이라는 말이 복잡해서 그런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국내 외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온 싱크 탱크들의 정책연구 자료들을 훑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대단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하기로 했던 캠벨 박사가 원장으로 있고 미국 대선과정에서 오바마의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했으며 현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싱크탱크인 CNAS(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생산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다. 제목은 「*The Power of Balance : America in Asia*」인데, 제목부터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체력균형(Balance of Power)'(이하 BOP)라는 용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BOP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보고서의 제목으로 '균형력(Power of Balance)'(이하 POB)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개념의 뜻부터 얘기를 시작한다. 오늘 캠벨 박사가 여기 오지는 못했지만 만일 캠벨 박사가 와서 강연을 했더라도 그 내용의 핵심은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개념 즉 '균형력(POB)'은 '체력균형(BOP)'과 무엇이 다른가? 'POB'는 아직 우리말로 번역하기 마땅치 않아서 영어로 일단 이야기 할 수밖에 없으나, 'BOP'라는 개념은 19세기에는 '균세'(均勢)라고 번역되었으며 요즘은 '세력균형(勢力均衡)'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CNAS의 캠벨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POB'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를 '복합동맹'(complex alliance)과 거의 같은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 19세기 우리는 BOP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禮)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질서를 살았기 때문에 BOP와 같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천한' 국제정치의 세계에 익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세동점에 따른 힘'과 힘'의 대결 속에서는 힘의 균형을 배워서 실천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자강과 균세에 실패한 우리는 결국 무대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런데 BOP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캠벨 박사가 BOP를 뒤집어 POB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BOP의 핵심으로서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 하기에 세계는 너무 복잡해졌고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POB라는 개념은 그동안 제가 설명해 왔던 '복합동맹'과 대단히 비슷한 개념이 된다. 주인공 차원에서는 더 이상 국가대 국가 간의 관계로만 외교나 국제관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시아를 볼 때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듯 다양한 힘을 균형 잡고'(balancing), 무대 역시 근대적인 군사, 경제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무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이러한 무대들을 균형 잡는' 역할이 중요하다. 주인공이나 무대의 복합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보다 더 겸손한 미국은 아시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OB가 이런 미국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동안 우리 EAI팀이 얘기해 왔던 주인공과 무대가 복합화되고 있다는 것과 이 보고서가 말하는 '미국이 BOP라는 근대적인 사고로부터 POB라는 복합적 사고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과는 굉장히 가까운 발상이다.

그러면 그동안 한국의 보수와 진보 간에 논쟁하던 한미동맹과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간 논쟁의 한미동맹은 오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동안 EAI팀이 연구해 왔던 '복합동맹'과 뭐가 다른가?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다루는 대상은 복잡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적 차원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다. 그리고 '복합'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고, 한미는 21세기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만나야한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운만 띄우는 것으로 강연을 진행하겠다.

미국이 세계정치 공간을 보는 시각이 "Global → Regional → National"과 같이 공간수준을 점점 좁혀간다면, 우리 경우는 냉전의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논의를 "National"한 차원에서 해 왔기 때문에 미국과는 달리 "National → Regional → Global"을 따라 세계정치 공간으로 보고 그 우선순위도 미국과 다르게 두어 왔다. 이렇게 공간을 인식하는 순서는 다르지만 우선 한반도부터 시작하겠다.

National Level : 한반도 문제

첫째, 한반도에 관한 얘기다. 여기에는 적어도 4개의 이야기가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비극적인 상황인 북한과 관련된 북핵과 북한 문제'이다. 둘째는 한미군사동맹의 문제이고, 셋째는 세계 금융위기나 경기침체에 따른 지도력 변환(leadership transformation)'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근대적 행위자와 무대가 한반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 등 4가지의 문제가 있다.

북핵 문제의 경우 오바마가 미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국내외에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데, 북핵'의 시각으로 보면 그 전망은 대단히 명확하다. 왜냐하면 BOP로 보는 것이 아니라 POB 차원에서 보면, 오바마 인수팀이 향후 6개월 동안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다 할지라도 오바마 정부가 내놓을 프로그램은 우리가 대강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6자회담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직접대화'를 동시에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과 직접대화를 복합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또 해결하는 방식이 BOP가 아니라 POB에 입각하여 그동안 미정부 특히 부시정부가 써왔던 것을 넘어 훨씬 고단위의 당근과 채찍'(stick and carrot)을 활용하여 접근하면 문제가 풀릴 것인가? 제가 보기에 이런 노력의 결과는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그 정도의 POB가 아니라 보다 복합화'한 방법으로 북한을 상대하기 전에는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물론 POB의 방식으로 북한에 투약하는 경우에는 병세가 전보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투약'으로 북한이 앓고 있는 "암"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북한 바깥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변화가 동시에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하지 않는 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시각에서 북핵문제를 보면, 북핵'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조선시대 정조(眞操)를 지키려는 여인의 마지막 은장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수령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은장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단위 당근과 채찍'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생존 즉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으로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비유자체가 부적절하다. 약간의 채찍과 당근으로 북한

주민 2천3백만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얘기다.

따라서 한국형 '복합'의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 바깥에서 공급해야 할 투약의 질과 양도 엄청나게 고단위로 바뀌어야 한다. 단 과거 10년의 햇볕정책처럼 해서는 안 된다. '햇볕'은 복합 접근이 아니라 지나치게 단순 접근이다. 소박한 햇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선진화 과정과 북한 바깥의 고단위 투약이 함께 진행되어야 북한문제를 풀 수 있다. 오바마 팀이 지금 여기까지 사고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아직 그 정도의 복합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미군사동맹은 어떻게 바뀌 나갈 것인가? '복합변환'(complex transformation)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냉전과 탈냉전의 동맹만으로 사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1세기 동맹의 변환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오바마 팀이 정권을 인수하게 되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오바마 팀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2001년부터 지난 7~8년간 미국의 모든 활동이 9.11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오바마 4년 또는 8년은 경제위기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 외교 군사 등 모든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도 우선 예산 걱정부터 해야 될 상황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국방부 예산을 GDP의 4%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경비를 최대한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첫 번째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단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시각이 단순한 BOP의 시각이 아니라, POB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쏜사는 그만 두고 이제 모든 것을 외교로 한다"라는 식의 발상이 미국 군사나 외교 또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 인수팀이나 오바마 정부 초기에 전면화될 가능성은 없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아는 사람이 없냐고 찾아다니는 데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다녀야 할 것은 새로운 미국 정부의 사고 정향이 어떤가? 어떤 사고가 미국의 향후 4년이나 8년을 주도할 것인가?'이다. 미국의 새로운 사고 지도를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것

도 사실은 미국 변화의 정확한 지도를 그리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속에서 군사부문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만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다.

Regional Level : 동아시아 문제

둘째, 동아시아 이야기이다. 이 지역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근대의 숙제인 통일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저 발밑만 바라보고 21세기를 살아왔고 국내의 갈등도 남북문제를 둘러싼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짜지는 것이 중진국(middle power) 수준인 한국에 바람직하고, 동시에 동아시아의 주변 강대국들을 불행하지 않도록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복합' 시각과 미국의 균형력(POB)으로 보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헤어질 것인가 하는 애기와 직접 연결된다. 국내에서 오바마 팀이 들어오면 일본의 시대가 가고 중국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든지 미중관계가 훨씬 중요해지게 된다'라든지 하는 혼란스러운 논의가 오고가고 있다. 이렇듯 상대방의 '사고'를 분석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설픈 인맥의 조각정보에 의존해서 아전인수하듯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미국의 향후 '사고'를 파악하는 데는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신미국안보센터(CNAS),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 인덱스인데 세 팀의 보고서나 글을 약탕기에 넣고 잘 다려보면 엷센스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CNAS를 예로 들면, POB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크게 4개 스쿨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우선주의자, 두 번째는 양자동맹주의자, 세 번째는 중국위협론자, 네 번째는 초국가적 도전론자 등이다. 그 중에 CNAS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은 POB적 시각에서 중국을 보자는 것이다. 미국/일본이나, 중국이나 하는 것은 대단히 근대적 시각이다. 양자동맹적 사고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적절히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대단히 고전적인 접근이다. '중국우선주의'는 급격하게 크는 중국을 우선 고려해서 미중관계 중심으로 짜야한다는 리버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중국위협론은 경직화된 전통적인 시각에서 어떠한지 중국을 막아야한다는 시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근대적 시각에서 보는 것으로 초국

가적 도전 즉 환경, 문화 등의 더 큰 문제들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문제를 잠재우지 않겠는가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POB하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릴 수 있다. POB가 전통적인 의미의 적절한 균형 즉 BOP를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BOP해야 하지만 BOP만 가지고 해결하자면 미국은 이미 그럴만한 힘이 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균형 잡기'(balancing)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자동맹도 함께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오바마팀 선거구호로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있었다. 즉 아시아에 있는 전통적인 양자적 동맹 또는 6자회담과 같은 형식들이 별로 마땅치 않기 때문에 EU와 나토 같은 접근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그동안 EAI에서 고민해 왔던 "복합동맹" 형태에 가깝게 갈 것이라 생각한다. 전통적인 동맹도 꾸려나가면서 다자 또는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을 전보다는 훨씬 비중있게 시도해 볼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가 쉽게 안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막연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을 묶어 넣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오바마 인수팀이 작업일 수밖에 없다.

지난 5년 동안 EAI에서 그려왔던 그림은 동아시아 안의 한반도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했다. 지금 오바마 팀에서 보는 것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이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19세기 이전까지는 본격적으로 근대를 경험하지 않았다. 서양의 근대를 '야만'이라고 불렀다. 20세기가 되면서 비로소 서양을 '문명'이라고 부르고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한 세기동안 '근대'를 받아들인 동아시아는 역설적으로 뒤늦게 서양보다 더 '근대'에 더 익숙해 졌다. 치열하게 각축하면서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근대적 삶에 더 익숙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오바마팀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아시아가 새로운 21세기 유럽적 실험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바마 팀이 예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긴 '고난의 행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양국 팀들이 악수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로서 만나, 미국은 미국대로 내재적 접근을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

민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대로 미국이 동아시아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려 하는지 하는 고민을 들으면서 동아시아와 미국이 동시에 해답을 얻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합”(complex)이 아닌가 한다.

Global Level : 지구적 문제

셋째, 지구 차원의 이야기다. 한국의 새 정부 구호가 “글로벌 코리아”다. 그러나 정말 글로벌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추상적인 글로벌에 대해서 미국은 익숙하겠지만 한국은 그리 익숙하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 현안 세계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경제다. 오바마가 당선된 이유 중 첫 번째는 경제위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라크 전쟁의 실패 때문이다. 부시가 두 번 당선된 것은 WMD 테러를 막겠다고 했고 이것을 정권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를 이라크 방식으로 막겠다고 해서 결국은 공화당이 대패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오바마 집권하면 WMD테러는 없어질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바마 역시 WMD를 우선순위에 놓고 이란과 북한 문제를 포함하여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다.

오바마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문제를 이라크 같이 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풀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란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 신정부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다 같이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 등에 동맹국으로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한국군 파병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 모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경중을 어떻게 다루면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느냐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북한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동아시아 및 지구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글로벌한 문제이듯 코리아의 문제도 글로벌한 문제이므로 따라서 한국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한국군이 아닌 동아시아군, 지구군이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 맡고 있는 과부하를 미국이 이해해 줘야 한다.

한국도 이제 지구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복합적” 역할을 담당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지구적 역할은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맡고 있는 지구적 역할을 고려해서 먼저 비군사적인 차원의 지구적 참여부터 시작하는 현실적이다. 한국군의 지역적 역할도 한중변수를 고려하여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보다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연구원 팀이 지난 5년 동안 고민해왔던 ‘복합’과 새로운 오바마 팀의 사고방향인 POB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두 시각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양쪽의 역할을 상호 공조하고,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

□ Q&A

○ 사회자 : 이제부터는 Q&A 세션을 진행하겠다. 많은 질문지들이 도착했는데 질의응답 세션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질문이 있으면 EAI 스태프에게 전해주시기 바란다. 같은 카테고리의 질문들을 묶어서 질문 드리겠다.

먼저 하영선 교수님께 여러 질문이 들어 왔는데 동아시아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을 여쭙보겠다. 동아시아에서 한미복합동맹이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어떤 전략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또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될 외교안보 정책이 어때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하영선 교수 : 복합 접근과 단순 접근의 기본적 차이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학계의 현실이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라는 것은 최근 20년 가깝게 접해온 질문이다. 즉 “친미냐, 친중이냐”라는 이분법 속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 해왔던 것은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다”였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네트워크”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물망”(network)은 단순한 그물망이 아니다. 복합” 그물망이 원칙이다.

한 미 일이라는 큰 그물망과 그것과 연계된 한 중 그물망이 동시에 촘촘하게 짜진 형태의 “그물”이다. 단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미중관계이다. 이러한

그물망 속에서 미 중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될 때 그물의 연결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가장 큰 대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미 중이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물망을 짜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정부는 잘 하고 있느냐? 아시다시피 출범이후 지난 10개월여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천미반북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갈등을 빚고 있는 국내정치권의 비판도 비슷하다. 그러나 당사국인 중국은 여러 번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단순히 '천미정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한 미 네트워크'와 한 중 네트워크'의 복합 그물망으로 엮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복합'의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통일론으로 제시된 '햇볕론' 또는 '하람론' 등은 시대에 뒤떨어진 논의들이다. 통일도 또 하나의 그물망이 필요하며, 그것은 '그물망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천북'이나 '한북'이나하는 논의도 벗어날 때가 됐다. 북한 문제를 푸는 데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것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 문제의 해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진화'(Coevolution)의 노력이 필요하다. 6자회담에서 북한이외의 5자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고강도 투약을 하느냐에 대한 진지한 노력과 함께 같은 수준에서 북한 선진화를 위한 내부적인 진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도 북한 문제를 이런 '복합' 시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자 : 복합동맹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다. 몇 가지를 묶어서 질문 드린다. 만약에 복합동맹이 진행될 경우에 한국군의 글로벌및 지역적 역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달라는 질문과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새로운 한미관계에서 한국군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단순 동맹(Simple Alliance)과 복합동맹'(Complex Alliance)은 어떻게 다른가?", "미국이 POB에 기초할 때 국방비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영선 교수 : 단순동맹과 복합동맹의 차이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주인공, 무대, 연기의 면에서 단순동맹은 국가가 부강무대에서 힘의 각축을 하는 속에서 국가들이 생사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긴밀하게 공동 노력하는 것이다. 복합동맹은 국가가 주연이기는 하나 다른 다양한 주인공들이 부강 무대를 포함한 복합무대에서 협력과 갈등하는 속에서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주인공들이 복합무대에서 삶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한미동맹은 냉전기간에 만들어진 모습과 21세기에 짜인 모습이 상호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미복합동맹이 글로벌화 할 경우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변영을 유지하는 역할은 동시에 동아시아와 지구전체를 위한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복합동맹에서 한국의 지역이나 지구적 역할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아시아 21세기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동아시아 질서는 어떻게 짜여야 하는가에 대한 국내외 담론 경쟁을 보면 우선 희망사항을 담은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존재한다. 보다 쉽게 말한다면 “동아시아에도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꿈으로서는 대단히 좋지만 동아시아는 아직까지 “공동사회”(共同社會, Gemeinschaft)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기에는 근대를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를 건설할 수 있나? 동아시아 ‘국제사회’ 형성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회’는 주인공들이 각자 이해를 서로 조정할 수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인데, 현재의 동아시아는 대단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복합’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이 지향하는 동아시아의 모형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EAI 연구팀은 최근 발간한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에서의 결론은 동아시아의 현 단계는 국제사회도 동아시아 공동체도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뿔뿔이 따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중국에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주인공들이 먼저 ‘동아시아 그물망 복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동아시아의 당면과제라고 제시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이야기해왔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우리는 다르게 다룰 수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흑백'으로 봐 왔다. 유연성을 인정하면 중국과 같등하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유연성을 부정하면 미국하고 같등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한 중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에 대해 생각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중국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얼마든지 복합그물을 칠 수 있는 빈 공간은 존재한다. 그런데 왜 못하는가? 그것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그물을 쳐보지 않아 사고의 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서양으로부터 배운 '늑대적 사고'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오른쪽(右派)늑대'나 왼쪽(左派)늑대'의 형태로만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회자 : 하영선 선생님께서 POB 개념을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POB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POB에 입각한 미국 외교정책이 한국의 '복합동맹'이나 POB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 하영선 교수 : '복합'이라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마치 '맛없는 찜뽕' 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 음식을 다 파는 퓨전 레스토랑이 진짜 고급 음식점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복합' 요리가 정말 고급 요리가 될 수 있는가를 당연히 고민할 수 있다. 또한 가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앞에서 근대의 속성이 '늑대'라고 할 수 있다면 탈근대의 속성은 '거미'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것을 섞어 놓으면 결국 '늑대도 아니고 거미도 아닌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는가 하는 고민이었다.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늑대'와 '거미'를 한꺼번에 입력해 봤다. 그런데 '늑대거미'(Wolf Spider, Lycosidae)라는 거미가 있었다. 한 몸으로 두 인생을 사는 거미가 '늑대거미'다. 이렇게 시작한 '늑대거미' 공부에 벌써 몇 년이 됐다. 이 거미의 특성을 보면 어떤 때는 거미줄을 안치고 '늑대'의 형태로 자기 먹이를 확보해나가지만 거미줄을 쳐야 할 상황에서는 거미줄도 친다. 적절하게 수단을 활용해나간다.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늑대거미'가 있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늑대'에 익숙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거미가 되냐'하고, '거미'와 같이 살아 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늑대같이 사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21세기의 국제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것이다.

중진국과는 달리 글로벌 파워는 '늑대'로만 살아도 된다. 그러나 요즘 미국을 보니 늑대로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거미처럼 EU에도 그물을 치고 아시아에도 그물을 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경우처럼 지구 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중진국은 '늑대'로만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계는 네트워크에 관해 활발히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우리 국제정치학은 아직 네트워크가 갖는 의미에 익숙하지 못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무대를 복합화하려고 할 경우에도 미국은 소프트파워 무대를 '양념' 같이 섞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하드파워 무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셉 나이가 말하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도 배합물로 보면 하드파워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소프트 파워를 섞는다. 역사적으로 우리같이 강대국 속에 갇혀 있는 약소국이었거나 중진국인 나라에서는 반대로 소프트파워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하드파워의 '양념'을 섞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배합물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보면 미국의 군사비는 현저히 줄어들어야 된다. 사실 미국의 재정적자에 중요한 한 부분이 국방 예산이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해외 주둔군이 이라크 14만, 아프가니스탄이 3만, 아시아 전체 10만, 유럽 전체 10만이다. 평소에는 20만 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40여만 명의 병력이 유지되고 있다. 또 4~5년 전쟁하는 동안 이라크 군비로 들어간 비용이 공식적으로만 해도 70억불이다. 따라서 전 세계 총 군사비 1조 5천억 달러 중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군사비가 거의 50%다. 이렇기 때문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국의 군사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팀은 BOP보다 POB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군사비를 줄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칼더 교수 말씀대로 미국의 군사비는 서서히 줄어들어가겠지만, 반대로 한국군의 지구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자 : 다음은 북한문제로 넘어가겠다. 하영선 교수님께 한 질문이다. 한미북합동맹 틀 안에서 앞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고강도 처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

라는 질문이 있다.

○ 하영선 교수 :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외부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오바마 인수팀에서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패키지를 새로 마련할 것이다. 그럼 어떤 패키지를 마련할 것인가? 6자회담을 계속 하면서 동시에 북미 직접 대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수준보다 한 등급 높은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는 오바마의 새로운 대북 직접대화는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또 하나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올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 북핵을 단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면 북한도 핵이 필요 없다는 것이 북한의 선군적 사고의 기본 공식이다. 그렇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북한이 선군적 시각에서 인정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북한의 공식자료에 따르자면 무엇보다도 생과 사’의 문제 이기에 “우리를 향해서 총칼을 겨누지 말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한미군 문제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미군사동맹의 성격변환을 확인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 선군팀의 주장은 미국이나 6자 중에 북한을 제외한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북한 선군팀의 요구사항을 염두에 둔다면 ‘당근과 채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정도로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의 요구에 상응할 정도의 고강도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현재와 같이 선군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경우에 어떤 고강도의 패키지를 마련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그것을 보다 현실화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개혁 개방적 시각이다.

그러면 북한은 선군 팀에서 개혁 개방 팀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션을 필요로 한다. EAI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북한 선진화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함께 도와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안목의 편차가 아니라 결국은 정치세력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를 담지하고 있기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일단 마무리하겠다.

○ 사회자 : 감사하다. 제가 소개해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 유익하고 좋은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안보에 관련되어, 오바마에 행정부에 에너지 중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다자주의 협력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 가능한 한 많은 질문들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질문자 여러분의 성함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이슈들을 두 분 선생님께서 폭넓게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답을 얻어 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셨나 생각한다.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두 분 강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끝 -